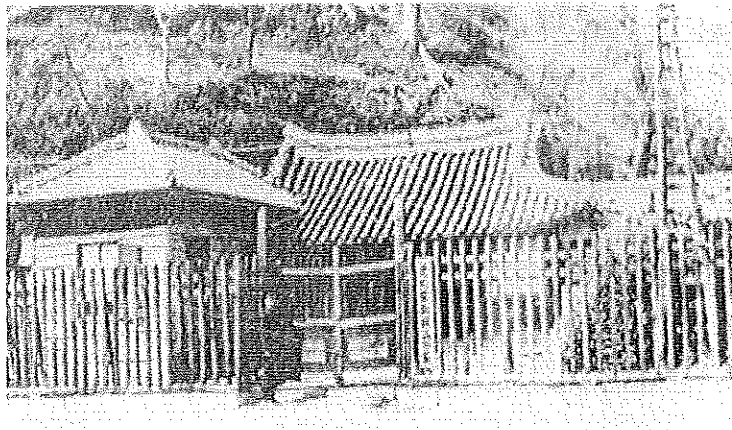


국권회복기

고창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투쟁

이 태 룡 (문학박사)



일시 : 2013. 10. 29(화). 15:00 - 17:00

장소 : 고창청소년수련관

국권회복기 고창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투쟁

이태룡(문학박사)

1. 고창 동학농민혁명

1) 시대상황

- ①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농민봉기
- ② 고부농민봉기

2) 고창 동학농민혁명

- ① 남접도소(南接都所) 설치 - 무장기포(茂長起包)
- ② 황토재전투 이후 전주 점령

3) 의의

- ① 동학농민혁명의 산실 역할
- ② 단순 민란 수준에서 전국적인 반봉건·반외세 농민혁명으로 전환 계기

2. 고창 의병투쟁

- 1) 영학당(英學黨) 조직 - 동학농민혁명 계승
- 2) 의병투쟁 - 호남창의회맹소의 모양성전투
- 3) '남한폭도대토벌 작전' 이후 '재토벌' 때까지 투쟁
- 4) 고창출신 고창의병과 타지출신 고창의병의 투쟁 내용

3. 과제

- 1) 고창 동학농민혁명과 의병투쟁 연계 연구
- 2) 고창의병 50여 명 서훈신청 및 후손 찾기

국권회복기 고창의병

국권회복기 호남의병은 전·후기 모두 전국에서 가장 늦게 일어났다.

‘국수보복(國讐報復)’의 기치로 일어난 전기의병은 여느 지방과 달리 의병해산령이 내린 후에 거의했지만, 이학상(李鶴相)의 나주의병을 제외하고는 실제 최종 거사 예정일이었던 4월 12일(음력 2월 30일) 며칠 앞두고 기우만(奇禹萬) 의병장이 의병해산을 선언하는 바람에 흐지부지 끝나 버렸으니,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어(移御)한 지 이미 두 달이 지난 뒤였다.

을사늑약 이후 ‘국권회복(國權恢復)’을 기치로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후기의병은 호남에서는 이듬해인 1906년 6월, 최익현(崔益鉉)·임병찬(林炳燦)이 태인에서 거의하여 순창으로 행진했지만, 며칠 후 전주·남원진위대 병사 각 1개 소대가 와서 총격을 가하여 의진의 소모장 정시해(鄭時海)가 순국하자 의진의 수뇌부 13명만 남긴 채 삼시간에 뿔뿔이 흩어졌다.

1906년 9월, 전주 출신 전 주사 백낙구(白樂九)는 광양의 선비 이항선(李恒善)·김상기(金相機)·노원집(盧元執)·채상순(蔡相淳)·유병우(柳秉禹) 등과 의병을 일으켜서 순천읍을 기습하고자 했다. 그런데 각지의 응원 부대가 제 때 도착하지 못해 기다리던 중 체포되어 고금도에 유배되었다. 그는 이듬해 봄에 석방되자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가 태인에서 일본 군경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이듬해 3월, 화순에서 양희일(梁希一), 이백래(李白來) 등이 의병을 일으켜 화순·능주·동복 등지로 나아갔으나 양희일이 체포되어 순국하자 의진은 무너졌다.

고광순(高光洵)은 창평 출신으로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에 호응하여 창평에서 거의했지만 최익현이 체포되어 의병이 흩어지자 남원의 양한규(梁漢奎)와 연합 전선을 펴서 남원읍을 점령했다. 그러나 얼마 후 양한규가 순국하자 의진을 수습하여 화순으로 돌아와서 능주·동복·구례·광양·순천 등지에서 활약하다가 농번기로 인해 의병을 해산했다.

그 해 8월, 충남 회덕 출신 김동신(金東臣)이 의병을 이끌고 고광순을 찾아왔다. 고광순은 고제량(高濟亮)·고광훈(高光薰)·신덕균(申德均)·윤영기(尹永淇) 등과 의병을 다시 일으켜서 9월 10일, 김동신 의진과 연합하여 순창의 우편취급소와 순사주재소를 습격하여 점령했고, 9월 15일 동복순사주재소를 습격했는데, 이로써 호남에서 본격적인 의병투쟁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창평의진을 이끌고 구례 연곡사에 머물면서 각지의 의병을 규합하니 동복·순천·곡성·광양·구례 등지와 경남의 거창·안의·하동 등지에서 호응한 의병이 1천여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광주수비대와 진해에서 출동한 해군 중포대대 진주파견대 등 일본군의 대규모 기습으로 고광순을 비롯한 의병 수십 명²⁾이 그날 전사했다. 이때부터 덕유산과 지리산을 무대로 하는 무주·진안·장수·남원 지역은 물론, 담양·장성·광주·영광·함평·나주 등지에서 본격적인 의병투쟁이 시작되었다.

그 해 10월(음력 9월) 장성 출신 기삼연(奇參衍)과 고창 출신 진사(進士) 이철형(李哲衡) 등이 호남의 우국지사에게 통문을 띄우자 당시 크고 작은 의진을 형성하여 의병투쟁을 하고 있던 의병장이나 거의를 준비하던 우국지사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장성의 수연산(隨緣山) 석수암(石水庵)에서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를 조직하였다.

호남창의회맹소³⁾

대장 기삼연(奇參衍), 선봉 김준(金準), 통령 김용구(金容球)

참모 김엽중(金燁中) 김수봉(金樹鳳)

종사 김익중(金翼中) 서석구(徐錫球) 전수용(全垂鏞), 이석용(李錫備) 김치곤(金致坤)

박영건(朴永健) 정원숙(鄭元淑) 성철수(成喆修) 박도경(朴道京)

중군 이철형(李哲衡) 김봉규(金奉奎), 후군 이남규(李南奎)

군량 김태수(金泰洙), 총독 백효인(白孝仁), 감기 이영화(李英華),⁴⁾ 좌익 김창복(金昌馥)

우익 허경화(許景和), 포대 김기순(金基淳)

이어 격문을 띄워 미곡 유출 방지, 외래품 판매 금지, 납세 거부, 일진회원 중심의 자경단(自警團)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다. 또한, 「대한매일신보」에도 편지를 보내 창 의 사실과 함께 격문을 게재함으로써 토왜의식(討倭意識)이 널리 고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였다. 또한 이집트(埃及)나 오키나와(琉球)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죽을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제히 쫓겨하자고 하였다. 또한 현상금을 걸고 주민, 심지어 순검이나 일진회원이라 하더라도 일본인의 머리를 베어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겠다고 고시하였다.

이와 같은 의진의 노력에 이대극(李大克)의 의진 등 약 5백 명에 이르는 의병이 몰려들자 이들이 싸울 무기가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고창 출신이자 의진의 포군장이었던 박도경(朴道京)이 당시 모양성(牟陽城)(현 고창읍성)의 무기고에 총포가 많이 저장되어 있으니, 그곳을 점령하여 무기를 확보하고 장기적인 투쟁의 거점으로 삼자고 제의하자, 기삼연을 비롯한 의진의 장령들은 이에 찬성하였다.

문수사(文殊寺)에 주둔하고 있던 의진은 10월 30일 모양성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 전인 10월 29일(음력 9월 23일) 일본군 헌병대였던 무장분파소(茂長分派所)의 내습을 받아 접전하게 되었다. 격전 끝에 모양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무기를 탈취해 두었다가 뒤에 의진을 무장할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성벽이 무너질 정도의 격전이 벌어져서 왜적도 많이 죽였지만, 의진의 종사관 김익중(金翼中)과 후군장 이남규(李南圭)⁵⁾ 등 의병 34명이 전사하는 큰 희생이 있었다.

12월에는 영광의 법성포(法聖浦)를 공격하여 쌓아 둔 세곡(稅穀)을 빼앗아 일부는 빈민에게 나누어 주고, 일부는 군량미로 비축하였다. 장성읍과 영광읍을 점거하여 군아·분파소·세무서·우편취급소 등을 파괴하고, 일본인과 일진회원을 살해하였다. 1908년에 들어서도 무장·고창·법성포·장성 등지에서 일본 군경과 싸워 위세를 떨쳤으나 담양 추월산전투에서 기삼연 의병장이 부상을 당해 순창 북흥산에 들어갔다가 체포되어 이튿날인 2월 3일, 광주 서천교 아래에서 총살 순국하였다.

기삼연이 순국하자, 김준·이대극 등 의진의 참모들은 통곡하며 호남창의회맹소 2대 대장을 선임했는데, 여기에 추대된 의병장이 이대극이다. 그는 회맹소의 장령들이 의병대장으로 오르기를 원하자 사양하다가 대장에 올라 의진을 재편성했다.

못 사람들이 모두 고집하고 대극(大克)을 추대하니 대극은 개연히 단에 올라 피를 입에 바르고 하늘에 맹서했다.

“국사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한 번 죽어 나라에 보답하는 것이 바른 직책이다. 무릇 함께 맹서한 우리들은 몸뚱이는 달라도 마음은 한 가지, 저 해[日]를 두고 증명한다.”

못 사람들이 모두 날뛰며 분발하므로 이에 노화삼(魯化三)으로 모사를 삼고, 이백겸(李伯謙)으로 선봉장을 삼고, 김남수(金南洙)로 좌익장을 삼고, 김관섭(金寬燮)으로 우익장을 삼고, 유자성(庾子成)으로 포장(砲將)을 삼고, 이화삼(李化三)으로 후군장을 삼고, 봉계칠(奉啓七)·정진옥(鄭珍玉)·주현숙(周賢叔)·주만옥(朱萬玉)을 모두 군사 참모로 삼았다. 이와 같이 소임이 배정되니 온 군중이 감격하여 모두 의를 떨치고 용기를 냈으며 이로부터 항응하고 따라붙는 자도 날로 더욱 많아서 군의 기세가 자못 성했다.

(『독립운동사자료집』 3. 301~302쪽)

이대극 의병장은 을사늑약 이후 이듬해 봄부터 영광을 중심으로 의병투쟁을 벌여 오다가 기삼연이 장성에서 거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 명의 군사와 다수의 군비를 가지고 그를 찾아갔다. 기삼연이 호남창의회맹소를 설치하자 그는 자신의 의진을 통합한 뒤 회맹소의 차석으로 도포장(都砲將) 겸 군기감(軍器監)으로 활약해 오다가 기삼연 의진의 장령들에 의해 추대되었던 호남창의회맹소 2대 의병장이었다. 그렇지만 호남 전체를 대표하는 종전의 회맹소와 달리 회맹소 본진을 일컫는 의미로 바뀌어 갔다.

그 후 김준(金準)·김율(金聿)·심남일(沈南一)·오성술(吳成述)·조경환(曹京煥) 등의 의병장은 의진을 수습하여 광주·나주·담양·함평·창평 등지에서 활약하게 되었고, 장성·무장·고창·흥덕·순창·정읍 등지에서는 국호남(鞠湖南)·김공삼(金公三)·김영백(金永伯)·김영엽(金永燦)·박도경(朴道京)·이대극 등이 활약하게 되었다. 특히 담양·장성·고창·무장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의진의 의병투쟁지가 되었는데, 김공삼·박도경 의병장은 격문을 돌려 흩어진 군사를 수합하여 김공삼은 선봉장, 박도경은 포사장(砲士將)이 되어 새로운 의진을 이끌게 되었다.

한편, 광주·나주 등지에서 맹활약하던 김준·김율 형제 의병장이 4월 25일 순국하자 의병의 사기는 저하되었으나 전해산(全海山) 의병장이 나주·담양·함평을 중심으로 크게 활약하게 되자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전해산 의병장은 김공삼 의병장과 의논하여 여러 의진이 연합하여 강력한 세력을 구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전해산을 대장으로 하는 호남 주요 의진 11개가 연합하는 ‘호남동의단(湖南同義團)’의 결성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1908년 전북 중서부 지역에서는 국호남·김공삼·김영백·박도경·이대극 의진의 활약이 눈부셨지만 이듬해 봄이 되자 일본 군경의 의병 공격이 더욱 심해져서 김공삼은 전해산 의진의 선봉장으로 활약하게 됐고, 박도경은 호남동의단 제2진 의병장으로서 전해산 의진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협력해서 의병투쟁을 전개했다.

박도경 의진의 의병은 110명이고, 선봉장 이도현(李道玄), 중군장 손도연(孫道演), 도십장 구연택(具連澤)과 좌우익장 및 참모를 거느렸으며, 총 139정, 칼 24자루를 보유하여 비교적 강력한 의진이었다. 그 후 호남동의단 제3진 의병장 김영엽(金永燦)이 의진을 이끌고 와서 합진하기를 청하자, 박도경은 흔쾌히 수락하고 광주의 일본군 본부를 습격하여 기삼연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지만 의진 간에 다툼으로 인해 김영엽 의병장이 유종여(柳宗汝) 등에게 피살되고 말았다. 그는

고창·장성 방면으로 돌아와서 제6진 의병장 이대극 의진과 의각지세(倚脚之勢)로 의병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이대극 의병장은 호걸다운 풍모가 있어 따르는 의병이 많았는데, 1908년 2월, 그는 무장·고산(高山)에 군사를 주둔하고 일본군 기병을 골짜기 속으로 끌어들이 복병으로 사살했고, 영광 불갑산 연실봉(蓮實峰)으로 진지를 옮겼는데, 여기서도 일본군을 물리치자 의병의 기세가 크게 떨쳤다. 이백점 선봉장으로 하여금 선봉부대를 이끌게 하여 고창 석곡(石谷)에서 일본군을 쳐부수고, 2월 24일 영광 백수(白岫)로 옮기다가 일본군의 기습으로 40명 중, 34명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 후 강필주(姜弼周)로 선봉장을 삼아 장자산(莊子山)에 이르러 일본군과 혈전을 치렀는데 강필주가 전사하니, 그는 의진을 장사산(長沙山)으로 옮겼다. 그는 1908년 1년 동안 전남의 나주·담양·함평·장성 등지와 전북 무장·고창·고부·정읍·순창 등 호남 중서부 지역에서 일본 군경과 격전을 벌였다. 일제는 현상금을 걸고 그를 체포코자 하였는데, 1909년 5월 21일(음력 4월 3일) 잠든 사이에 현상금을 노린 배반자에 의해 피살됨으로써 순국하였으니, 그는 호남의 신돌석과 같은 인물이었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가 일제 통감부의 보호에 힘입어 정치를 행함은 나라의 독립을 해치는 것으로 단정하고,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추방하고자 1907년 11월(음력 10월) 전남 장성군 북이면에서 몽둥이를 들고 일어난 이가 김영백(金永伯) 의병장이었다. 그는 약 1천명을 규합하여 부하로 삼고, 의진을 편성하여 총 2백 정을 준비하고, 군자금·탄약·식량·피복 등은 주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전남 장성·광주, 전북 고부·정읍·태인·부안·고창·홍덕·순창 등지에서 맹활약을 벌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해 5월 16일(음력 3월 27일) 일본군의 줄기찬 공격에 전해산 의병장이 의진을 해산하게 되자 일부 의병은 박영근(朴永根)·박도경·신보현(申甫鉉) 등의 의진으로 가서 투쟁했으나 박영근·박도경 의병장도 얼마 후 체포되었고, 신보현은 남원·순창 등지로 나아가 의병투쟁을 벌이다가 전사 순국(추정)하는 상황이 되었다.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 작전을 펼침과 아울러 융희황제의 의병해산 조칙에 이어 2차 대살육전으로 인해 더 이상 의병투쟁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김영백 의병장은 2백여 명의 부하 의병의 구명을 위해 자수하기에 이르렀고, 김공삼·박도경 의병장도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고부·고창·무장·홍덕 지역의 의병을 살육하기 위해 10월 중순 이후에는 일본군 제2연대 병력이 집중 배치되니, 의병투쟁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고창 출신 박도경 의병장은 그 해 12월 3일 광주지방법판소 전주지부에서 교수형을 받고 대구공소원에 공소했으나 이듬해 1월 18일 기각되었고, 2월 2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마저 기각되어 순국하게 되었다. 판결문에는 기삼연의 호남창의회맹소 포군장으로 참여하였고, 기삼연 의병장 순국 후 의진을 수습하여 2백여 명의 의진을 이끌고 전남 장성, 전북 무장·고창·홍덕·부안 등지에서 20여 차례 의병투쟁을 벌였다고 했다.

고창 출신 김공삼 의병장은 그 해 12월 8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교수형을 받고 대구공소원에 공소했으나 이듬해 1월 27일 기각되었고, 3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마저 기각되어 순국하게 되었다. 판결문에는 그가 20~400명의 의병을 이끌면서 1908년 음력 2월 25일 전남 장성 송치(松峙)에서 일본군 4명, 음력 3월 6일 장성 월반(月半) 장터에서 순사 6명, 음력 5월 18일 전북 무장군 와공면 군유리(群儒里)에서 기병(騎兵) 7명을 사살했다고 했다.

그에 대한 일화가 「호남의병장열전」에 실려 있다.

(김공삼은) 광주로 압송되었다가 다시 대구로 옮기었다. 적이 꼬이기를, “머리를 숙이면 용서하겠다.” 하였다. 크게 꾸짖기를, “본국의 신민(臣民)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찾으려고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간의 바른 도리이다. 어찌 나의 당당한 의(義)를 굽혀서 견양(犬羊)의 무리에게 살려 달라고 애걸한단 말이나. 한 죽음이 있을 뿐이다. 속히 나를 죽이라. 나는 마땅히 모진 귀신이 되어 적을 모조리 죽이리라.” 하였다. 적들은 서로 혀를 휘두르며,

“의사(義士)다.”하고, 칭찬하였다. 마침내 죽여서 성 밖에 묻었다. 모양(牟陽)의 인사들이 각기 돈을 내어 모아서 고향에 반장(返葬)하였다.

(『독립운동사자료집』 2. 654쪽)

공훈록에는 김공삼이란 이름으로 건국훈장 애국장, 김봉규(金奉奎)는 전남 출신으로 독립장을 추서했고, 생물연대조차 모두 잘못되어 있다. 김공삼의 본명은 봉규(奉奎)이다.

김영백 의병장은 그 해 12월 20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교수형을 받고 대구공소원에 공소했으나 이듬해 3월 5일 기각되었고, 4월 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마저 기각되어 순국하게 되었다. 판결문에는 1907년 11월 1천여 명으로 거의하여 1909년 6월 17일까지 전남 장성·광주, 전북 고부·정읍·태인·부안·흥덕·고창·순창 등지에서 수비대 기병·현병·순사대와 10여 차례 의병투쟁을 벌였다고 했다.

고창 출신 이철형 의병장은 당시에는 영광에서 살았다. 그는 호남창의회맹소 중군장으로서 기삼연 의병장과 더불어 무장·고창·법성포·장성 등지에서 의병투쟁을 벌여 위세를 떨쳤지만 기삼연 의병장이 이듬해 2월 체포되어 순국하자 의진이 무너졌다. 그는 은거하던 중, 융희황제의 의병해산령에 따라 자수하였다. 1909년 11월 24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교수형을 받고 대구공소원에 공소하여 이듬해 1월 18일 징역 15년을 받고 약 7년 동안 옥살이 후 감형으로 풀려났으나 고문과 감옥살이 여독으로 인하여 1년여 만에 숨졌다.

흥덕 출신⁶⁾ 국호남 의병장은 1907년 가을 기삼연(奇參衍) 의진인 호남창의회맹소에 참여하여 의병투쟁을 전개하다가 기삼연 의병장이 순국하자 의병을 모집하여 호남 서남부 지역에서 활약했다. 1908년 1월 장성과 광산 지역에서 일본 군경과 교전하여 전과를 올렸고, 그 후 4월에는 2백여 명의 의진을 형성하여 8월 21일 전남 영광군 현내면 사창리 시장에서 한국파견기병대 분견소를 습격하여 기병 1명을 죽이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30년식 기병총 4정을 탈취하는 전과를 올렸고, 일본인 집을 공격하여 일본인을 죽이고 총기를 탈취하기도 했다. 그 후 전해산(全海山) 의진의 후군장으로 활약하기도 했지만 상당 기간은 독자적으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본 군경이나 일본인들로부터 탈취한 신식무기로 의병투쟁을 벌였으니, 그 전과는 어느 의진보다 훌륭했다. 국호남은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 작전’ 때도 유격전을 펼치면서 투쟁하였고, 그 후 호남 각지를 전전하다가 1910년 9월 6일 장성군 북일면 금곡(金谷)에서 40여 명의 의진 함께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어 광주감옥 군산분원에 수감 중, 10월 26일 13명의 의병과 함께 탈옥하였다. 그는 11월 30일 광주지방법판소 군산지부에서 궐석재판으로 교수형을 받은 상태에서 호남 각지를 전전하며 의병투쟁의 길을 모색하던 중, 1912년 봄에 체포되어 4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5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와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각각 기각되어 7월 23일 대구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했다.

고부 출신 이백겸 의병장은 1907년 12월 의병을 일으켜 전북 무장, 전남 영광 일대에서 활동하다가 이대극 의진에 합진하여 선봉장으로 활약하면서 전북 고창 석곡(石谷)에서 일본군을 공격하여 승전한 후 이듬해 2월 24일 영광군 백수(白蚩)로 의진을 옮기던 중, 고창군 오서면 독곡리(篤谷里)에서 일본군 기마대·순사대와 교전하여 선봉부대 40명 중, 34명과 함께 순국하였다.

고창 출신 오장환(吳壯煥) 의병장은 호남창의회맹소에서 도통(都統)으로 활약했고, 기삼연 의병장 순국 후 의진을 수습하여 호남 중서부 지역에서 1909년 6월까지 10여 차례 일본 군경과 교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지만 무장군 와공면에서 붙잡혀 순국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달(7월) 26일 당서(當署)의 순사가 동행한 토벌대는 전북 무장군 와공면 군율촌(群律村)7)에서 폭도 최기봉(崔奇奉)·김동문(金東文) 두 사람을 체포하고, 다음날 27일 동군 동면 남산촌(南山村)8)에서 폭도의 수괴 오장화(吳長化)9)인 자를 죽였다고 한다.10)

전남 장성 출신 이화삼 의병장은 1898년에는 흥덕군 북면 중남 당리(현 고창군 흥덕면 하남리 중남마을)에 살았는데, 흥덕의 영학당(英學黨)을 이끌다가 체포되어 태 100도에 무기징역을 받아 고초를 겪다가 감형되어 석방되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이듬해 마을의 일가 50여 가구의 장정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서 삼북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의병투쟁을 전개하다가 이대극 의병장이 영광에서 기병하자 합진하였고, 이어 호남창의회맹소에 참여하여 무장·고창·법성포·장성 등지에서 의병투쟁을 펼쳤다. 기삼연 의병장이 패전하여 일본군에게 피체, 순국한 후 1908년 2월 19일 김준 의병장과 더불어 이대극을 맹주로 추대하였으며, 그는 후군장으로 활동하였다. 1909년 4월 3일 이대극 의병장이 피살되자 의진을 수습하여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1910년 1월 영광 백양산(白羊山) 등지에서 많은 전과를 거두며 혈전을 벌이던 중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1910년 1월 28일 순국하였다.

무장 출신 서종채(徐鍾採) 의병장은 의병투쟁 때의 가명 서응오(徐應五)로 널리 알려진 의병장이었다. 그는 1907년 여름 40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활약하다가 호남창의회맹소에 합진했고, 뒤에 이대극 의진에 합진하여 선봉장으로 활약하였다. 이대극이 피살된 후 의진을 수습하여 2백여 명의 의진으로 고창·무장·부안·영광·함평 등지에서 수십 차례 적과 접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이른바 ‘남한폭도대토벌’ 전후는 물론, 경술국치 후에도 끈질기게 투쟁하였으나 1913년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1)에서 15년형을 언도받았고, 그 해 9월 27일 대구복심법

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1916년 4월 22일 대구형무소에서 심한 고문의 여독으로 옥사 순국한 전북의 마지막 의병장이었다.

국권회복기 의병투쟁 당시 현재의 고창군은 고창·무장·흥덕 3군이어서 지역이 넓은 편이었다. 게다가 불의에 항거하고, 나라사랑하는 지역민의 기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의병투쟁에 참여하는 바람에 전국에서 의향(義鄕)으로 손꼽힌다.

참고자료

♣ 고창출신 고창의병 공적내용

2013년 8월 15일 현재

연번	성명	주소	공적내용	서훈
1	강대영(姜大榮)	흥덕군 부안면 금곡리	유형 10년	애족장
2	강종회(姜鍾會)	고창군 신림면 도림리	순창의병	애족장
3	국호남(菊湖南)	흥덕군 동일면 월명리	교수형	애국장
4	고석진(高石鎭)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순창의병	애국장
5	고예진(高禮鎭)	고창군 신림면 송암리	순창의병	애국장
6	고제남(高濟南)	고창군 성내면 옥제리	전사(총살)	애국장
7	고제천(高濟川)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독립의군부	애족장
8	김공삼(金公三)	고창군 고사면 가협리	교수형	애국장
	김봉규(金奉奎)	전남 광산	교수형	독립장
9	김대옥(金大玉)	고창군 산내면 신촌리	징역 7년	애족장
10	김동환(金東煥)	고창군 천북면 신월리	징역 10년	.
11	김만대(金萬大)	무장군 청해면 삼가리	징역 5년	.
12	김보배(金寶培)	흥덕군 부외면 난산시	징역 2년 반	..
13	김상묵(金相默)	무장군 이동면 과실치리	징역 10년	애국장
14	김상오(金相五)	무장군 군내면 성내리	징역 15년	애국장
15	김여삼(金汝三)	흥덕군 이서면 신안리	징역 2년	.
16	김영수(金永洙)	흥덕군 고전면 대고리	징역 5년	.
17	김응구(金應九)	무장군 장자산면 춘산리	징역 2년 반	.
18	김재관(金在寬)	고창군 고수면 장두리	독립의군부	애족장
19	김재구(金在龜)	고창군 성내면 옥동리	독립의군부	애족장
20	김재근(金在根)	흥덕군 이서면 영계리	징역 1년 반	.
21	김재근(金在根)	흥덕군 부회면 염수리	징역 1년	.
22	김재화(金在華)	고창군 상하면 비봉리	전사	애국장
23	김정수(金正洙)	흥덕군 부외면 하오산	징역 7년	.
24	김중구(金仲九)	고창군 오서면 예동	징역 15년	애국장
25	김찬섭(金贊燮)	무장군 이동면 상성리	징역 5월	.
26	김찬숙(金贊淑)	고창군 공음면 응암리	징역 10년	.
27	김판돌(金判斗)	고창군 공음면 신대리	징역 15년	.
28	김화숙(金化淑)	고창군 공음면 신대리	징역 15년	.

29	노병희(魯炳熹)	고창군 성내면 대흥리	순창의병	애국장
30	문홍순(文洪順)	무장군 상이면 구산촌	징역 10년	·
31	박도경(朴道京)	고창군 고사면 가협리	교수형	독립장
32	박명서(朴明西)	고창군 고사면 사점리	징역 7년	·
33	박양운(朴良云)	흥덕군 일서면 중등리	징역 10년	·
34	박정숙(朴正淑)	고창군 산내면 사신리	징역 1년 반	·
35	서종채(徐鍾採)	무장군 이동면 백양리	무기징역	독립장
36	송성무(宋聖武)	흥덕군 북면 행정	징역 5년	·
37	신덕오(申德五)	흥덕군 이동면 원천리	징역 5년	·
38	신종주(愼宗周)	고창군 벽천면 조양리	독립의군부	애족장
39	신화산(愼華山)	고창군 (이하 미상)	전사	애국장
40	안관숙(安冠叔)	고창군 수곡면 연동리	징역 10년	애족장
41	안순경(安順京)	고창군 수곡면 연동리	징역 1년	·
42	안행팔(安幸八)	흥덕군 부내면 인촌리	징역 2년	·
43	안화여(安化如)	무장군 대제면 성남리	징역 8월	·
44	오장화(吳長化)	무장군 와공면 남산촌	전사	애국장
	오장환(吳壯煥)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전사	애국장
45	오치규(吳致奎)	흥덕군 일서면 종림리	징역 10년	·
46	이범술(李凡述)	흥덕군 부외면 난산시	징역 2년	·
47	이성구(李城九)	무장군 장자산면 반일리	징역 2년	·
48	이성실(李成實)	흥덕군 일남면 왕림리	징역 10년	애국장
49	이용태(李用泰)	고창군 오서면 송교리	징역 1년 반	·
50	이철형(李哲衡)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징역 15년	독립장
51	이화섭(李化燮)	무장군 청해면 이곡동	징역 10년	·
52	정시해(鄭時海)	고창군 성송면 하고리	전사	애국장
53	정진옥(鄭陳玉)	고창군 천남면 하거리	징역 10년	·
54	진선도(陳善道)	흥덕군 부외면 우수곡리	징역 7년	·
55	최경현(崔敬賢)	무장군 (이하 미상)	전사	애국장
56	최영만(崔永萬)	무장군 와공면 장동리	징역 10년	·
57	최유복(崔有福)	흥덕군 부안면 임촌리	징역 5년	·
58	최전구(崔銓九)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유형 2년	애국장
59	최중오(崔仲吾)	고창군 대아면 오향리	전사	애국장
60	하천일(河千一)	무장군 장자산면 대장리	징역 10월	·
61	홍익선(洪益先)	고창군 읍내면 하거리	징역 1년	·

♣ 타지출신 고창의병 공적내용

2013년 8월 15일 현재

연번	성명	주소	공적내용	서훈
1	강금성(姜今成)	전북 부안 읍내동문 동중리	징역 2년	·
2	강필주(姜弼周)	(미상)	전사	애국장
3	곽낙삼(郭洛三)	전남 무안 산하면 평풍촌	징역 15년	애국장
4	기삼연(奇參衍)	전남 장성 황룡면 아곡리	전사(총살)	독립장
5	김낙선(金洛先)	전북 부안 소산면 운곡리	징역 15년	애국장
6	김영백(金永伯)	전남 장성 북이면 달성리	교수형	독립장
7	김옥엽(金玉燁)	전북 고부 백산면 묘산리	징역 3년	·
8	김요량(金堯郎)	전남 장성 읍서면 월평리	징역 7년	·
9	김익중(金翼中)	전남 장성 황룡면 다호리	전사	애국장
10	김창욱(金昌旭)	전남 영광 진량면 두호리	징역 10년	·
11	김치도(金致道)	전북 고부 수금면 좌두리	징역 3년	애족장
12	문판석(文判石)	전북 부안 하서면 신기리	징역 2년	·
13	방순명(房順明)	전남 창평 개평면 내동	징역 5년	·
14	백효인(白孝仁)	전남 장성 황룡면 금고리	기삼연 의진	애족장
15	변각원(邊珏源)	전남 장성 북이면 당청리	징역 1년	애족장
16	서성국(徐成局)	전북 고부 성포면 용산리	징역 1년 반	·
17	송방섭(宋方攝)	부안군 우산내면 고사포리	징역 1년 반	·
18	신경수(申敬守)	전남 장성 북이면 백암리	징역 10년	애국장
19	오두천(吳斗天)	전북 부안 상서면 의복동	징역 3년	·
20	오응천(吳應天)	(미상)	전사	애국장
21	오진상(吳鎭相)	전남 함평 해보면 창서리	전사	애국장
22	원인석(元仁石)	충북 영춘 대곡면 하일리	교수형	애국장
23	이광삼(李光三)	(미상)	전사	애국장
24	이남규(李南奎)	전남 함평 나산면 수하리	전사	애국장
25	이대극(李大克)	전남 영광 대마면 남산리	피살	독립장
26	이득춘(李得春)	전북 정읍 읍내면 인무리	징역 7년	·
27	이백겸(李白謙)	전북 고부군(이하 미상)	전사	애국장
28	이성숙(李成淑)	전남 영광 봉산면 호곡리	징역 7년	·
29	이성용(李成用)	전북 고부 성포면 용산리	교수형	애국장
30	이중백(李仲伯)	전남 장성 서삼면 외현리	교수형	애국장
31	이창호(李昌浩)	전북 고부 성포면 봉방리	징역 5년	애국장
32	이화삼(李化三)	전남 장성 삼계면 자초리	전사	애국장
33	이화춘(李化春)	전북 태인 남촌면 향촌	징역 2년 반	애족장
34	임경조(林京祚)	부안군 좌산내면 대소리	징역 1년 반	·
35	임장택(林長澤)	(미상)	전사(추정)	·
36	전해산(全海山)	전북 임실 남면 국화촌	교수형	대통령장
37	정원채(鄭遠采)	전북 고부 성포면 천석리	태 100도	·
38	정판용(鄭判用)	전북 부안 좌산내면 사동	징역 10년	애족장
39	채봉선(蔡鳳善)	전남 장성 북상면 학림리	징역 종신	애국장
40	최기섭(崔基燮)	부안군 좌산내면 용동리	징역 5년	·
41	최명집(崔明集)	전북 부안 입하면 도지리	징역 1년	·
42	최봉선(崔鳳先)	전북 부안 성포면 와석리	징역 7년	·

* 고창·무장·흥덕 출신 고창의병과 타 지역 출신 고창의병으로 의병투쟁을 벌이다가 전사·옥사·교수형을 받아 순국한 분이 28명, 5년 이상 종신 징역형을 받은 분이 37명이나 되고, 판결문이 남아 있는 76명 중에 50명은 아직도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50명 중, 25명이 5년 이상 15년 징역형을 받은 분들입니다.

♣ 바로잡아야 할 주요 의병장 공적

♠ 국호남(鞠湖南) 1912년 33세~1912.7.23

일명 : 동완(東完)·찬서(贊書)·치원(致元)·국차서(國次書)

전북 흥덕군 동일면(東一面) 월명리(月明里) 출신이다.

1907년 가을 기삼연(奇參衍) 의진인 호남창의회맹소에 참여하여 의병투쟁을 전개하다가 기삼연 의병장이 순국한 후 의병을 모집하여 1908년 1월 장성군과 광산군에서 일본 군경과 교전하여 전과를 올렸고, 4월에는 2백여 명의 의진을 형성하여 호남 서남부 지역에서 활약했다. 전해산(全海山) 의진의 후군장으로 활약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독자적으로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8월 21일 전남 영광군 현내면 사창리 시장에서 한국파견기병대 분견소를 습격하여 기병 1명을 죽이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30년식 기병총 4정을 탈취하는 전과를 올렸다. 1909년 3월 7일 30여 명의 의진을 이끌고 전북 흥덕군 북면 사포리 거주 일본인 평정덕장(平井德藏) 등 2명을 죽이고 엽총을 탈취한 후 가옥 4동을 불태웠고, 5월 30일 11명의 의진을 보부상과 짐꾼으로 위장하여 전북 고부군 거마면 평고리 거주 일본인 대삼오랑길(大森五郎吉)의 집으로 들어가서 13년식 보병총 3정을 탈취하였으며, 6월 7일(음력 4월 20일) 부하 약 10명과 함께 무장하고 흥덕군 은곡리(隱谷里) 일대 민가에서 군자금 1백 냥을 지원받아 의병투쟁을 전개하였다.

국호남 의진은 전북 고부·부안·고창·흥덕 등지를 휩쓸었는데, 대부분 40여 명으로 구성된 의진으로서 총기 약 20정을 휴대한 기동성이 있는 유격부대의 성격을 띠었다. 이들은 대체로 농민·보부상 등의 신분이 비교적 낮은 계층의 인물들로 구성되었고, 지역적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용어주도한 유격전을 펼칠 수 있었으며, 특히 일본 군경이나 일본인들로부터 탈취한 신식무기로 의병투쟁을 벌였으니, 그 전과는 여느 의진보다 훌륭했다.

일제는 1909년 9월 1일부터 일본군 2,260명을 호남에 투입했을 뿐 아니라 수천 명의 경찰·헌병·헌병보조원과 밀정을 총동원하고, 또 해안에는 해군 수뢰정대를 동원하여 이른바 '남한폭도대 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의병 대살육 작전은 10월 25일까지 지속되었는데, 고창을 중심으로 한 호남 중서부 지역은 이른바 '재토벌 작전'까지 전개하여 그간에 1백여 명의 대소 의병장이 파살되거나 체포되었고, 약 2천여 명의 의병이 체포되었다.

그 기간에도 국호남은 유격전을 펼치다가 1910년 9월 6일 장성군 북일면 금곡(金谷)에서 40여 명의 의진 함께 일본군에 체포되어 광주감옥 군산분원에 수감 중, 10월 26일 13명의 의병과 함께 탈옥하였다. 그는 11월 30일 광주지방법판소 군산지부에서 필석재판으로 교수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호남 각지를 전전하며 의병투쟁의 길을 모색하던 중, 1912년 봄에 체포되어 4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5월 2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와 6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각각 기각되어 7월 23일 대구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순국했다. 그의 의진에서 활약하던 의병으로 김낙선(金洛先)(징역 15년), 김동환(金東煥)(징역 10년), 김옥엽(金玉燁)(징역 3년), 김요랑(金堯郎)(징역 7년), 송성무(宋聖武)(징역 5년), 채봉선(蔡鳳善)(종신 징역) 등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80년 대통령표창,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김공삼(金公三) 1910년 46세

전북 고창군 고사면 가협리 출신으로 본명은 봉규(奉奎)이고, 공삼은 자이다.

1907년 음력 8월말 기삼연(奇參衍) 의진에서 중군장으로 있으면서 전북 고창·무장·부안과 전남의 담양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동년 음력 9월경 고창주재소 순사를 습격하여 고창읍내에서 교전하였으며 또 동년 11월에는 추월산(秋月山)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접전하며 활동하였다. 그 후 1908년 음력 1월 기삼연이 피체된 후에는 의병장으로 추대되어 부하 20~200여명을 지휘하며 동년 음력 2월 25일경 전남 장성 송치(松峙)에서 일본군 4명을 사살하고 동년 3월 6일에는 장성 월반(月半) 장터에서 접전을 벌여 일본인 순사 3명과 한인 순사 3명을 살해하였다. 또한 5월 18일 전북 무장군에서 일본군 기병 7명을 사살하는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1909년 2월 25일에는 고창군과 부안군의 접경인 변산에서 일본군 기병과 교전하였고 동년 6월 20일에는 고창에서 의진을 해산시키고 재기하려 계획하던 중 일본 경찰에게 피체되었다. 그 해 12월 8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소위 내란죄로 교수형을 언도받아 대구공소원에 공소하였으나 1910년 1월 27일 기각되었고, 3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마저 기각되어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김봉규(金奉奎) 김공삼과 동일인

전남 광산(光山) 출신이다.

기삼연(奇參衍) 의진의 의병장으로 전남북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895년 일제에 의한 왕비 참살과 단발령이 강행되자, 이듬해 2월 전남 장성에서 삼종질(三從姪) 기우만(奇宇萬)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던 기삼연이 1907년 9월 재차 봉기함에 김봉규는 이에 동참하였다.

그는 기삼연을 중심으로 결성된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에 이철형(李哲衡)과 함께 중군장이 되어 대장인 기삼연 의병장을 시종일관 추종하였다. 때문에 그는 기삼연 의병장의 좌우 손발과 같았고, 기삼연 의병장을 도와 1907년 9월 23일(음력) 선봉장 김준(金準)과 함께 전북 고창 문수암(文殊岩)으로 접근해 오는 일본군을 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고, 그 해 12월 7일에는 법성포 순사주재소를 기습 공격하여 소각시킨 후 창곡(倉穀)을 탈취하는 전과를 올리는데 기여하였다. 1908년 2월 3일 기삼연 의병장 순국 후에는 박도경(朴道京)과 함께 이 의진을 수습하여 의병투쟁을 지속하였다. 그러다가 박도경과 함께 피체되어 일제의 회유를 당했지만, 그는 “나라의 신민으로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간의

바른 도리이다”라고 하며 끝내 거절하고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김영백(金永伯) 1880.9.3~1910.5.2

전남 장성군 북이면 달성리(達城里) 출신이다.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군대마저 해산되어 일제의 식민지화 추진이 노골화 되어가자 국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의병을 일으켰다. 그는 그 해 10월 전남 장성군 북이면서 동지 약 1천 명을 규합하여 스스로 대장이 되었다. 그는 의진을 선봉장·중군장·후군장·좌우익장·군량관 등의 부서를 편성하고 총 2백정을 준비하였으며, 자금·탄약·식량·피복 등을 군민들로부터 징발하여 군비를 갖추었다. 그 후 장성을 중심으로 하여 광주·고부·정읍·태안·부안·흥덕·고창·순창 등지를 무대로 활약하였다.

1908년 음력 3월 4일 정읍 단곡리(丹谷里)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수비대를 기습하였다. 7월에는 흥덕수비대 보병과 격전을 벌였다. 9월 21일 방장산(方丈山) 산록 백계동(白溪洞)에서 수비대의 기병과 헌병 및 순사대와 교전하였다. 10월 상순 장성군 북이면 신기리(新基里)에서 교전하였고, 11월 상순에는 동군 오현(鰲峴)에서 헌병대와 교전하였다.

1909년 1월 말경 장성군 북이면 상곡리(上谷里)에서 수비대 기병과 그리고 2월 중순에는 장성군 북이면 동산리(東山里)에서, 2월말에는 흥덕군 세곡리(細谷里)에서, 4월 11일에는 장성군 일동면 구수교(九水橋)에서, 4월 중순에는 고부군 강고리(江古里)에서, 4월 말경에는 흥덕군 일남면 유점리(鎭店里)에서 각각 일본군과 전투하고 상호간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일제가 융희황제의 의병해산령을 앞세워 회유하고 한편으로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무차별 공격을 가해 오자 그는 마침내 의진의 의병을 구명하고자 일본 헌병대 고부분전소에 자수하였다. 12월 20일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에서 교수형의 선고를 받고 대구공소원에 공소하였으나 이듬해인 1910년 3월 5일 기각되었고, 이어 4월 7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5월 2일(음력 3월 23일) 순국하였다.

그의 활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하였지만, 진중일기류(陣中日記類)를 남기지 않아 일제의 기록과 다른 의병장의 기록에서 그 일부를 볼 수 있는 것이 유감이다. 또한 호남동의단(湖南同義團)을 구축했던 전해산(全海山) 의병장이 국호남(鞠湖南)·김공삼(金公三)·박도경(朴道京)·이대극(李大克) 등의 의진과는 연합전선을 전개하였지만, 그와 연합전선을 펴지 않았던 것은 그가 호남창의회맹소에 참여하지 않고도 1천여 의병을 모아 독자적으로 활약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의 의진에서 활약한 의병 중, 정원채(鄭遠采)(태 1백), 김재근(金在根)·변각원(邊珪源)·최명집(崔明集)은 징역 1년, 서성국(徐成局)·임경조(林京祚)는 징역 1년 반, 이범술(李凡述)은 징역 2년, 김치도(金致道)·김여삼(金汝三)은 징역 3년, 방순명(房順明)·신덕오(申德五)·이창호(李昌浩)는 징역 5년, 이득춘(李得春)·최봉선(崔鳳先)은 징역 7년, 강대영(姜大榮)(유형 10년), 이성실(李成實)(징역 10년) 등이 고초를 겪었고, 신경수(申敬守)(징역 10년, 옥사)·이성용(李成用)(교수형)은 순국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8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서종채(徐鍾採) 1881.10.15~1916.4.22, 이명 : 응오(應五)·종주(鍾珠)

전북 무장군 이동면 백양리 출신이다.

1907년 40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활약하다가 기삼연(奇參衍) 의진에 합진하였고, 1908년에는 이대극(李大克) 의진의 선봉장으로 활약하였다. 이대극 의병장이 전사한 후 2백여 명으로 의진을 재편성하여 함평·영광·무장·부안·고창 등지에서 여러 차례 일본 군경과 접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1909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병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군자금 조달에도 주력하여 많은 충기를 보충하여 맹활약했다.

그러나 마침내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913년 7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살인·강도 및 ‘총포·화약류취체령’ 위반죄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언도받았으며, 그해 9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1914년에 20년으로, 1915년에 15년으로 감형되었으나 1916년 4월 22일 대구형무소에서 심한 고문의 여독으로 옥사 순국하였다.

그가 체포되고 난 후에도 부인을 비롯하여 온 가족이 일경의 탄압을 받았음은 말할 것도 없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8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오장환(吳壯煥) 1863.11.12~1909.7.27

전북 고창군 아산면 남산리 출신이다.

1907년 7월 일제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 조약과 아울러 교환된 비밀각서에 의해 군대 해산이 단행되었다. 오장환은 비분함을 금치 못하다가 기삼연(奇參衍), 김준(金準), 이대극(李大克), 전해산(全海山) 등 동지와 같이 거의하였다. 특히 기삼연은 을미의병에 참여하여 일찍이 광주, 장성 일대에서 명성을 떨친 바 있었다. 이들은 장성·고창·영광 등지에서 의병을 모집하여 활동하였다.

오장환은 기삼연 의진에서 도통(都統)으로 임명되어 1907년 10월부터 의병투쟁을 전개하여 1909년 6월까지 10여 차례 일본 군경과 교전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6월 10일¹²⁾ 밤을 이용하여 잠시 귀가하여 가사를 정리하던 중 광주로부터 내습한 일본 경찰에게 기만적인 회유를 받았으나 격투가 벌어져 체포되었다. 그러나 끝내 적에게 반항하다가 이튿날인 7월 27일(음력 6월 11일)현장에서 피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이대극(李大克) 1875.~1909.5.21

일명 : 대국(大局)·대국(大國)·순식(淳植)·영화(英華,永和)·명식(明植)

이대극의 본명은 순식(淳植)이고, 자는 영화(英華)이며, 전남 영광군 대마면 남산리 출신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영광읍민의 추대로 수성장(守城將)이 되어 활약함으로써 군사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뒤 참봉(參奉)으로 임명되었으나 국운이 기울어

짐을 개탄하여 귀향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일제의 국권침탈이 더욱 가속화되어가는 것을 보고 이듬해 봄 영광에서 거의하여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1907년 9월 기삼연(奇參衍)이 장성에서 거의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백 명의 군사와 다수의 군비를 가지고 장성 수연산 석수암(石水庵)에 유진하던 기삼연을 찾아갔다. 기삼연이 호남창의회맹소(湖南倡義會盟所)를 설치하자 의진을 통합한 뒤 기삼연을 맹주(盟主)로 추대하고 그 휘하에서 도포장(都砲將) 겸 군기감(軍器監)이 되었으며,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에 격문을 보내어 거의 명분을 천명하였다. 그 해 10월에는 일본군이 야음을 틈타 은밀히 의진을 포위하고 있음을 뒤늦게 알고 군사를 좌우로 분산시켜 협공케 하여 일본군에게 타격을 가하였다. 이어 법성포·무장·고창·영광 등지를 전전하며 연전연승을 거두고 일본인 추방을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장성에서 회군하고 말았다. 그 해 10월 11일 기삼연과 함께 무장·고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유인, 공격해 타격을 가하였다. 이어 불갑산 연실봉(蓮實峰)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일본군과 싸워 승리하였으나, 계속되는 전투로 전력이 크게 소모되어 11월에는 장사산(長沙山)으로 후퇴하여 진영을 정비하였다. 기삼연 의병장이 순국한 후 호남창의회맹소 2대 의병장에 올라 선봉장 이백겸(李伯謙), 좌익장 김남수(金南洙), 우익장 김관섭(金寬燮), 포장 유자성(庾子成), 후군장 이화삼(李化三), 모사 노화삼(魯化三), 참모 봉계칠(奉啓七)·정진옥(鄭珍玉)·주현숙(周賢叔)·주만옥(朱萬玉) 등으로 의진을 구성하여 의병투쟁을 펼쳤다. 일본군은 현상금을 걸고 그를 체포코자 하였는데, 1909년 5월 21일(음력 4월 3일) 잠든 사이에 현상금을 노린 배반자에 의해 피살됨으로써 순국하였다.

그의 의진에서 활약한 주요 참모는 그가 순국한 후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대부분 전사했는데, 강필주(姜弼周)·오응천(吳應天)·이백겸(李白謙)·이화삼(李化三) 등이 그들이다. 서종채(徐鍾採)(징역 15년, 옥사), 김상오(金相五)(징역 15년), 김상묵(金相默)·이화섭(李化燮)(징역 10년) 등은 갖은 고초를 겪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이화삼(李化三) 1866.3.15~1910.1.28

전남 장성군 삼계면 자초리 출신이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마을의 일가 50여 가구의 장정과 의병을 일으켜 맹주가 되어 삼북주재소를 습격하고 1906년 3월 군율작전, 비린내작전 등 수십 차례에 걸친 전투를 하였다. 1906년 봄 의병장인 이대극(李大克, 淳樸이라고도 함)이 영광에서 기병하여 일본군을 쳐부수고자 기삼연(奇參衍) 의진과 합세하여 기삼연을 맹주로서 추대하여 법성포·무장·장성 등지에서 전투할 때 함께 참전하였다. 1907년 10월 장성으로 회군한 좌익군은 기삼연이, 그리고 그는 우익군의 이대극과 함께 어등산(魚登山) 전투를 거쳐 석대산(石臺山)에서 의진을 정비하고 휴식하던 중, 기삼연이 패전하여 일본군에게 피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908년 2월 김준(金準)과 의진을 재편성하여 이대극을 맹주로 추대하였으며, 노화삼(魯化三)을 참모로 하고 이백겸(李伯謙)은 선봉장, 그리고 그는 후군장으로 임명되어 의병활동을 하였다. 1908년 4월 18일 무장·고산 등지에서 일본 기병을 쳐부수고 동년 5월 8일에는 불갑산 연실봉(蓮實峰) 전투에 참전하였다. 또한 9월 12일 고창 독곡(篤谷)에서 대흔전을 치르다가 이백겸 의병장이 패전하자¹³⁾ 강필주(姜弼周)로 하여금 대항케 하는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10월 20일 무장 장자산(莊子山)에서 전투 중 강필주가 전사하

고, 이대극이 퇴군한 후 1909년 4월 3일 피살되자 의진을 수합하여 의병장이 되어 활동하였다. 1910년 1월 영광 백양산(白羊山) 등지에서 많은 전과를 거두었으며 본진과 합류하여 대혈전을 벌이던 중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1910년 1월 28일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6년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주

- 1) 면암 최익현이 1906년 6월 4일 거의했다가 6월 12일 관군에게 붙잡혀 일본군 사령부로 압송, '구금 3년'을 받고 8월 28일 대마도에 도착함. 이를 뒤 대마도 수비대장의 방문 시 갓을 벗으라는 말에 반발하여 이를 동안 단식함. 단식하면서 유소를 작성했으나 그 후 일본군의 사과로 단식을 중단하고 구금 생활을 하다가 석 달 뒤에 발병하여 이듬해 1월 1일 병사했다. (광무황제가 시호를 내리지 않음.) 후에 훗날 실제 더 이상 행하지도 않은 단식이었는데, 유소를 버리지 않았기에 '아사순국(餓死殉國)'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
- 2) 『전남목도사』에는 13명으로 기록했으나 『독립운동사자료집』 3. 711~712쪽에는 2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 3) 의진 초기에는 17명이었으나 거의 후 임무가 주어진 6명이 추가되었다.
- 4) 이대극(李大克)
- 5) 이남규 의병장은 중상 후 며칠 뒤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 6) 판결문을 우선으로 했다. 사형집행 때의 『조선총독부관보』(1912.7.29.)에는 전북 태인군 동촌면 구산리로 나온다. 이는 의병투쟁 당시와 탈옥하여 붙잡힐 때의 주소가 달랐기 때문이다.
- 7) 현 전북 고창군 공음면 군유리
- 8) 현 전북 고창군 아산면 속리
- 9) 오장환(吳壯煥)의 오기로 판단한다. 국권회복기 호남의병에 관한 각종 기록 속에 오장화(吳長化)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의병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문서에 드러난 7월 26일 체포된 의병 최기봉(崔奇奉)·김동문(金東文)의 거주지 군율촌과 오장환이 살던 남산촌이 현재 면은 다르지만 13.2km 정도 차이가 나며, 그 마을이 각각 군유리와 남산리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의 내용은 전화 보고였기에 이름이 약간 다른 예는 흔히 볼 수 있고, 또한 의병투쟁 당시 가명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순국일과 장소가 일치하므로 오장화는 오장환과 동일인으로 판단한다.
- 10)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권. 129쪽
- 11) 광주지방재판소 전주지부의 명칭이 바뀌었다.
- 12) 순국일은 1909년 7월 27일(음력 6월 18일)로 본다. 본문 중, 의병투쟁 기록(『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5권. 129쪽) 참조
- 13) 이백겸 의병장은 1908년 2월 24일 순국하였다. 오류이다.